

대통령은 우선 경청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리더(leader)는 l-e-a-d-e-r다. -경청(listen)하고, 실천(execute)하고, 지원(assist)하고, 토론(discuss)하고, 평가(evaluate)하고, 책임(respond)진다.

리더는 들어주고 보스는 고함친다. 리더는 술선수범하고 보스는 비겁하게 뒤로 뺀다. 리더는 지원하고 보스는 채찍질 한다. 리더는 토론하고 보스는 명령한다. 리더는 평가해서 보상하고 보스는 공을 독차지한다. 리더는 책임지며 보스는 희생양을 찾는다. 무엇보다 리더의 최고 덕목은 경청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의 표현을 빌리면 “경청한 다음에 설득”해야 한다. 최고의 컨설팅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경청(consult)하는 것이다. 컨설턴트 세계에는 조사자 위에 분석자가 있고 분석자 위에 충고자가 있고 그 위에 경청자인 컨설턴트가 있다. 소설가 김정빈씨에 의하면 ‘들어준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어서 준다는 것이다.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다는 뜻이다.

백아(伯牙)는 거문고 연주의 명인이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그의 연주의 묘미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홀로 산에나 들에 나가 연주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거문고 소리의 묘미를 알아주는 나무꾼 종자기(鍾子期)를 만나게 됐다. 곧 두 사람은 벗이 됐다. 중국에서는 친한 벗을 지기(知己)라고 한다. 나아가 백아와 종자기처럼 상대의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가치까지 알아주는 벗을 ‘지음(知音)’이라고 한다.

경청은 훌륭한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게 한다.

“나는 전략에 있어서는 장자방만 못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한신만 못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소하만 못하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말이다.

‘크림슨 타이드(Crimson Tide)’라는 영화가 있었다. 핵잠수함 이야기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사령부로부터 “러시아의 핵기지로 핵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를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러나 10초의 카운트 다운을 준비하고 대기중이던 잠수함에 갑자기 본부와의 교신이 두절된다. 이 때 함장은 발사를 주장하지만 젊은 장교는 본부의 분명한 명령없이 핵을 발사하면 3차 대전으로 간다고 반대한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두 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결국 통신이 재개되자 젊은 장교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잠수함은 무사히 귀환한다는 내용이다. ‘노맨’을 부하로 키우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경청하고 책임지는 리더 중의 리더가 CEO다. CEO는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현실주의자다. 경영이란 사람과 돈 그리고 생산과 기술을 결합하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그래서 CEO십이란 리더십의 덕목에 더하며 돈과 자원의 결합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다.

현실은 체계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상주의자는 몽롱해져서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되는 게 CEO십이다. 전 서울대총장이 대통령에 뜻이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교수는 경정보다 가르치기 바쁜 이들이다. 또 학자는 책을 통해 대체로 죽은 사람들이나 먼 나라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연습은 많이 한 편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얽힌 첨예한 말을 경청한 훈련은 거의 없는 이들이다.

오랫동안 군인 장교출신 대통령들이 국민을 질병취급해서 괴로운 적이 있었다. CEO를 아무나 탐내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 대통령은 우선 경청에 도(道)가 터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3일 (금)	11월 6일 (월)	11월 7일 (화)	11월 8일 (수)	11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343.20	1325.80	1303.20	1306.10	1305.50
일	본	엔	(JPY)	892.67	887.27	868.80	868.62	865.23
영	국	파	운 드	(GBP)	1638.17	1640.61	1608.80	1605.98
캐	나	다	달 러	(CAD)	977.30	970.57	951.35	948.79
홍	콩	달	러	(HKD)	171.66	169.45	166.63	167.03
중	국	원	(CNH)	183.20	180.49	178.58	179.41	179.22
유	로	화	(EUR)	1426.08	1421.85	1397.16	1397.27	1398.06
호	주	달	러	(AUD)	863.74	863.43	845.78	840.15
싱	가	폴	달 러	(SGD)	984.03	978.88	964.94	964.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69	280.33	281.07	279.59
							279.59	278.74